

한국에서의 인문학과 포스트모더니즘*

석 경 징**

1.

오늘 우리 인문학의 위상이나 형국을 포스트모더니즘과의 관련하에서 논의하기에 앞서 다음 두 가지 사항을 검토 없이 전제하고자 한다.

그 하나는 인문학이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그런 인문학이 있거나 한 것인가라는 문제에 관하여 대답을 하지 않거나 긍정적 대답을 하겠다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교육적이고 사회적인 제도로서의 대학이 존재하고, 그 대학에서 전통적으로 인문학을 구성하는 학문분야인 언어와 문학, 철학 그리고 역사가 연구 교육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방금 사용한 '전통적'이라는 말에는 "서구의" 또는 "서구에서"라는 제한어가 붙을 수 밖에 없다는 것 또한 엄연한 사실이다. 인문학(humanities)의 역사적 형성은, 멀리 희랍의 문화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자연과학인 생물학과 구별되는, 그리고 사회과학인 정치학과 구별되는 인간에 관한 관심의 표현에서 비롯하였으며, 로마시대에 이르러 humanities란 말이 묘사적 기능뿐 아니라 인간적 자질, 감정, 성향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준거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었고, 뉴먼(John Henry Newman)에 이르러 이상적 신사상(像)을 제시하는 바탕이 되고 따라서 교양교육(liberal education)의 과정과 목표로서 확립되었다고 한다.)¹⁾ 이처럼 오랫동안 문화축적의 결과로서로서의 인문학을 생각할 때, 우리 자신에게 인문학이란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물을 수 밖에 없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루어 온 문화축적의 결과로 마련한 제도의 하나인 대학을 마치 외래문물을 들여오듯 옮겨다 놓고, 그 대학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른바 인문학이란 것을 연구, 교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고,

* 본 논문은 1997년 10월 30일 인문과학연구소 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된 것임.

** 서울대학교 영문과 교수

1) *The Encyclopaedia Britannica*.

따라서 서구의 경우와 비교할 때 마치 본말이 전도된 듯 한 우리 인문학의 형편은 말하자면 태생적 문제성을 지녔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인문학에 관한 그 어느 논점과 비교한다 하더라도 이보다 더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가 또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면한 논의를 전개하기 위하여 이 문제를 논의로 할 수밖에 없고, 같은 이유로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인문학적 과업이 그 근원이나 내력이 어떻건 간에 정당성을 지닌 과업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다른 하나는 같은 맥락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의 현실이 포스트모던하다는 판단이 정당인가라는 문제에 대하여 전자를 대체로 논외로 돌리고²⁾ 후자에는 긍정적 답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겠다.

2.

사실 이런 전제에 깔려있는 논리는 우리의 문화나 정신에 관련되는 모든 논의의 밑에 있는 것이라 하겠다. 한자를 통한 중국어의 유입에 대한 역사적이고 사실적인 파악 없이 진행할 수밖에 없는 한국어의 의미론이나 통사구조의 연구, 서구에서 일본을 거쳐 들어온 문학적 형식, 특히 시나 소설의 경우의 이질적 요소에 대한 철저한 파악 없이 문학적 특성이니 심미성이니를 취급해야 되는 문학비평이나 연구, 동양철학 서양철학으로 갈려진 형편에서 서로 다른 학문수련체계(discipline)인양 대해야 되는 철학적 탐구, 일본의 지배 이후를 이룬 분단상황에서 우리 자신의 민족적 국가적 정체성을 아무런 거리낌없이 검토하지 못하는 우리의 현대사 연구 등은 아주 흔하고 많은 예 가운데 극히 적은 수를 든 것에 불과하지만,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우리의 인문학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구조적, 논리적 문제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 문제는 처음부터 착실한 방법론의 전개를 비효율적인 것이 되게 하고 건전한 결과를 처음부터 불가능하게 한다.

이런 상황에서 “성실한” 인문학 연구자가 취할 방향은 두 가지가 있겠는데, 하나는 자신을 마치 서구의 인문학 연구자처럼 여기면서 이른바 “정당한” 인문학 연구를 능력껏 수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단한 성과는 처음부터 무망한 것이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 해결되지 않은 논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특징이 정립된 것처럼 여기겠다는 것이다. cf. Alex Callinicos, *Against Postmodernism* (1989), Christopher Norris, *What's Wrong with Postmodernism*(1990).

외래의 인문학을 우리의 토양에 뿌리박아가면서 절망과 좌절을 당연시하며 연구를 수행하는 길이다. 이 두 번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말하자면 역사나 문화가 수 백년 혹은 수 천년에 걸쳐서 이루는 일을 짧은 시간 안에 조금이라도 해 보겠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게 되는 것은 운명적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고, 이 운명적 형편이 우리의 인문학 연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³⁾

그러나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인문학의 위기가 이런 운명적 상황에서 초래되는 것은 물론이나, 그런 종류 이외에도 갖가지 어려움이나 문제가 인문학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고 하겠다. 이를테면 우선 넓게는 소위 포스트모던한 상황에서 초래되는 어려움이 있겠고, 둘째로 자본주의가 주도한 산업화 과정에서 기인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또 인문학 연구의 주소지인 대학의 여러 조건에서 기인하는 문제들이 있을 것이고, 나아가 결국 지식이란 무엇인가, 혹은 무엇을 앎이라고 하는가라는 문제에 결부되어 일어나는 난점들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논의는 편의상 지식에서 대학으로, 대학에서 인문학 그리고 끝으로 포스트모더니즘에 이르는 순서로 진행하겠다.

3.

오늘날 고도로 발달된 정보사회로 진입하게 되었다는 우리들은 지식과 기술이 혼동되거나 거의 동의어로 쓰이는 것을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지식 즉 학문적 지식(*scientific knowledge, epistēmē*)과 기술(*technical skill, technē*)을 분간한 아리스토텔레스는 학문적 지식은 자연과 같이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이론활동을 수행하는 지적 능력이라고 규정하고, 기술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제작활동을 수행하는 지적 능력이라고 규정하였다.⁴⁾ 원래 이론활동이나 제작활동에서 발휘하는 능력으로서 모두 지적 능력이라는 하나, 그 능력의 활동의 대상이 다르므로써 능력이 구별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대적 의미에서의 과학의 발달, 기술의 발달에 따라 이론활동 능력으로서의 지

3) 清水幾太郎, 『論文 짓는 법』에는 주로 한자 어휘로 이루어지는 관념어와 주로 토박이 말로 이루어지는 일상어 사이를 하루에도 수백 수천번 왔다갔다하면서 정신의 건강성을 유지해야 하는 일반 지식인의 경우를 예증하는 대목이 있다.

4) Aristotle, *The Physics*, (Philip H. Wicksteed & Francis M. Cornford trs.), London: William Heinemann, 1929, i. 11, 129, ii. 237.

(知)와 제작활동 기술로서의 지(知)가 비슷한 양상을 띠게 되고 비슷한 기능을 하게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것은 아마도 과학의 발달이 인류에게 물질적 풍요와 생활의 편리를 가져다주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테크네가 에피스테메를 압도한 것 같은 형편이 초래되었다고 하겠다. 원래 아리스토텔레스는 에피스테메, 테크네와는 별도로, 지성(intelligence, *nous*), 지혜(wisdom, *sophia*), 그리고 분별력(prudence, *phronesis*) 등을 따로 분간하여 넓은 의미에서의 인간의 지적 능력을 규정하였다.⁵⁾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을 따른다면 오늘날 테크네에 해당하는 능력에 놓이는 중요성은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고 따라서 매우 부당한 것이라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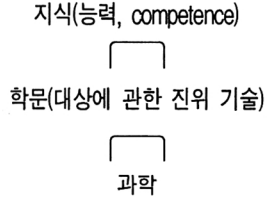
이런 맥락에서 리오타르(Jean-François Lyotard)의 지식론은 매우 중요한 생각을 제시하는 것이라 하겠다.⁶⁾ 그는 현대의 지적 상황을, 과학과 기술에서의 진보라는 일반적 패러다임에 경제적 성장과 사회정치적 세력이 섞이어 이루어 놓은 결과로 보고, 과학적 지식에 대한 근본적 비판이 거의 없음을 일단 시인한다. 그러나 과학적 지식이 지식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며, 과학적 지식의 상대적 개념으로 서술적 지식(narrative knowledge)이란 것을 설정한다. 그리고 이 서술적 지식이 과학적 지식을 이겨낸다고 할 수는 없을는지 모르나 이 서술적 지식의 모델은 (인간의) 내적 평형 즉 안심과 흥겨움에 관련을 갖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사회적 유대를 본질적으로 의사소통 메커니즘에 의하여 지탱된다고 보는 리오타르는, 의사소통 기계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소통행위 하나 하나가 일종의 언어게임이어서⁷⁾ 이런 대화상황은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측면의 하나인 논쟁적 측면(agonistic aspect)을 성립시키는 것이라고 본다.

이어서 리오타르는 서술적 지식의 본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학문, 과학간의 위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구도를 떠올린다.

5) Aristotle, *Ethics*, Book Six, 207-213 (Penguin)

6) Jean-François Lyotard, *The Postmodern Condition* (1984) 7-9

7) Austin이나 Searle의 "Illocutionary acts"에 가까운 언화행위이다.



리오파르트는 지식(knowledge)은 과학(science)이나 학문(learning)으로 환원될 수 없고, 학문은 대상에 관하여 진위를 언명하는 기술들만의 조합이며, 과학은 그와 같은 학문의 하위조합에 불과하다고 설명한다.

이와 같은 구도는 현재 테크네(technē)에 압도되어 있는 듯한 에피스테메(epistēmē)를 원래의 이론활동의 지(知) 이상의 지위로 올려놓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과학적, 기술적 지식에 대하여 인문학적 지식이 따로 있다고 생각할 때, 그 인문학적 지식은 이 구도의 최상위에 위치한 지식(knowledge)에 비정(比定)될 수밖에 없음은 매우 분명하며, 따라서 리오파르트의 이런 구도는 위기에 몰린 인문학에서의 지식논의에 매우 든든한 전망을 부여하는 것이라 하겠다.

도대체 무엇이 테크네로 하여금 에피스테메를 압도하는 지경을 초래케 하였는가? 역사적 경위를 따라가며 밝히는 작업은 이 글의 범위 밖의 것이지만, 그런 변화의 주된 원인은 역시 지식의 수량화일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안다는 것을 더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일단 수량화 이상 좋은 방법은 없을 것이다. 수량화는 대상의 개별화 끝에 도달한 것으로 여겨 온 기본 단위의 정립과 함께 우리가 안다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주는 틀림 없는 근거로 여겨져 왔고, 사실 과학의 발달, 지식의 축적은 이 수량화에 의하여 우리의 앎을 확고한 것이 되게 함으로써 가능해졌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이미 그랬듯이 변화하지 않는 대상에 대한 확고한 지식(에피스테메의 원래의 뜻)만이 우리 지식의 전부라 아니었다. 지혜만 해도 대상을 파악하고 평가하고 우리로 하여금 대응하도록 해주지만 결코 대상을 확고히 제한, 규정하고 개별화하고 수량화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지식”이란 우리말조차도 지적 능력을 작용하여 이론 상태나, 지적 능력을 가리키는 경우는 거의 없어지고, 개별화되고 수량화된 앎의 단편들이나 그 단편들의 집합을 가리키는 말이 되어왔다.

4.

지식의 개별화, 수량화, 단편화는 지식의 거주지랄 수 있는 대학에서도 착착 진행되고 있는 듯하다.

우선 전통적 (물론 여기의 전통도 우리 자신의 전통은 아니다) 대학에서 중추적 위치와 의미를 지녔던 인문학이 사회적 역할과 내적 체계에서의 변화에 따라 그 지위와 의미를 더 이상 보상받지 못하게 되었다.⁸⁾ 또 인문학의 전통적 프로젝트라고 할만 하였던 계몽이라는 상위 계획(Grand Narrative)이 붕괴한 형편에서 인문학은 이제 문화의 건설이나 교양의 함양에서도 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흔히 대학의 기능을 교육(teaching)과 연구(research)의 양면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원래 이 두 가지를 대학의 양면적 기능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그 두 가지의 면이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었다. 가르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연구를 필요로 하는 것이고, 연구를 한다는 것은 우선은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라 하겠다. 여기에서 수량화 된 지식으로 변해버린 테크네가 수량화가 본질적으로 어려운 에피스테메 또는 노우스(지성)나 소피아(지혜)를 제치고 연구를 촉진하게 되고 그 촉진되는 연구는 수량화가 보다 더 용이한 연구 이룰테면 이공학에서의 연구같은 것이 되는데 그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대학에서의 연구는 일차적으로 교육을 위한 것이지 대학 밖의 다른 어떤 것을 위한 것이 아니다. 대학에서의 연구가 대학 밖의 어떤 것에 쓸모가 있게 되는 것은 그야말로 제2차적인 일이고, 우연한 일일뿐이다.

대학에서의 지식이 테크네 중심으로 개편되고 인문학의 지위가 이공학으로 대치되는 상황은 우리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우선 그것은 대학교육을 중등교육화하는 것이 된다. 수량화는 표준화를 낳게 되고 표준화는 극단적 비인간화를 낳게 된다. 어느 학교에서나 똑 같은 지식을 똑 같은 수준까지 배우게 된다는 것이 바로 중등교육기관의 특징의 하나이기 때문이고, 또 그것은 대학을 기술 학교 또는 연구기관 화하는 것이 된다. 대학과 달리 기술학교란 일정한 정도의 생산성을 목표로 교육이 행하여지는 곳이며 따라서 연구 없이 교육이 진행되고, 연구소는 생산성을 목표로 하기는 마찬가지로 교육 없이 연구만 수행되는 곳이라고 하겠다. 둘 다 충실한 의미

8) *The University in Ruins*에 나타난 Bill Readings의 의견에 찬성하면서 이를 요약 소개한다. 특히 "Introduction," "The University and the Idea of Culture," "The Community of Dissensus" 참조.

에서의 대학이 아님은 말할 필요도 없다.

지식의 수량화의 진행은 인문학, 이공학 가릴 것 없이 대학에서의 모든 연구 결과도 수량화해버리고 만다. 몇 편의 논문을 썼느냐가 문제되지 어떤 논문을 썼느냐는 별로 문제되지 않는데, 이것은 연구결과조차도 지식이라는 미명아래 수량화해버린데서 기인하는 것이다.

인문학에서의 연구가 개별화, 수량화가 어렵고 인문학에서 다루는 지식에서 불분명성, 모호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형편에서 근래 자주 들먹여지는 산학협동이란 생각은 인문학 연구와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끔찍하게 혐오스럽고 위협을 느끼게 하기도 한다. 이는 이해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대학 교육을 활성화한다면 그 방향의 하나로 제시되는 산학협동은, 본래 실생활에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 고등교양교육으로서의 대학 교육의 특질이라고 여겼던 “전통적” 생각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대학교육을 결국 직업교육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게 한다.

사회적 조건이 오늘날처럼 심각하게 바뀌는 상황에서 전통적인 대학교육관이 고수되기 어려운 것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는 사실이지만, 지식의 수량화에서 비롯한 대학에서의 여러 변화가 궁극적으로 대학교육 자체를 소멸케하는 상황의 전개를 그냥 방치할 수도 없을 것이다.

5.

다음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의 문제인데, 우선 우리 사회는 어떤 면에서 포스트모던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먼저 언급했던 리오타르, 하싼(Ihab Hassan)⁹⁾을 포함하여 많은 철학자, 비평가들이 포스트모더니즘을 규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나 포스트모던성(Postmodernity)이 무엇인가에 관한 일반적인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고, 또 이런 종류의 인식의 특성상 분명한 의미규정이나 정의가 있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오늘의 논의의 주제와 상관은 갖는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특징들을 들어보기로 하겠다.

먼저 앞서도 여러 번 거론한 지식의 수량화는 기본단위의 추구로 하여금 과학적 탐구의 기본적 양태가 되게 하였고, 그와 같은 기본적 단위의 추구는 극단적인 파편화와 분열을 낳게 되었다. 분열의 다른 이름은 다양성이며 이 다양성은 포스트모더니티의 하나의 특성을

9) Hassan은 *Paracriticism*(53-59)에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대조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룬다고 하겠다. 일단 성립된 다양성은 그러나 정보전달의 높은 수행성능 때문에 곧 개체 간의 차별이 지워지고 물개성적인 것으로 전락한다. 우리의 현실이 포스트모던한가라는 문제를 잠시 잊혀 놓고라도, 짧은 주기로 일어나는 다양성의 성립과 소멸의 반복을 아주 일상적인 상황에서 볼 수 있다. 이를테면 유행어의 하나인 “튀다”는 말을 생각해 보겠다. 튀다는 것은 다른 개체가 갖지 않은 특성을 가짐으로써 개별적 존재를 주장하는 일일 것이다. 통상에서 벗어난 옷을 입는다던가 머리모양을 이상하게 꾸며서 일단 의견상으로도 “튀”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보매체의 높은 수행성은 어떻게 하면 튀게된다는 정보를 순식간에 확산시키고 가장 뚜렷하게 튀 케이스를 모방케 하여 비슷한 개체를 일시에 등장하도록 한다. 각각 튀 개체들의 집합이 벌여놓은 다양성을 일시에 소멸케 하고 조금 전에 가장 많이 튀었던 케이스의 복제를 양산하여 튀고자 하는 개체를 결국 초조하고 불안하게 만든다. 다양성/분열이 불안정을 낳는 좋은 예라고 생각된다.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하는 비인간화의 현상을 “뭍쓸” 자본주의¹⁰⁾와 산업사회 논리의 결합에서 보게 된다. 원시사회에서의 생산은 필요에 따라 일어나는 현상이었겠으나 고도로 발달한 산업사회에서 테크네의 극단적 개발에 따른 높은 생산능력은 결국 자연발생적 필요를 넘어선 수요를 창출해야만 할 지경에 이른다. 수요의 창출 자체가 3차 산업의 주요한 구성요소가 되고 그것도 더 절실하게 요구되는 수요의 창출을 불러 온다. 옷감과 구두의 과다생산은 구두의 굽을 높이고 바지를 늘어뜨려 그 굽을 가리는 것은 물론 청소차의 청소 솔처럼 길바닥을 쓸게 하여 구두와 옷감의 과다생산이 수요에 맞춘 공급이 되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일상으로 겪어 알고 있다. 이것은 거의 우스운 예에 불과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와 똑같은 형편이 우리의 사회, 경제에 널려있는 것을 부인할 도리는 없다. 이런 수요와 공급의 순서 전도도 결국 포스트모던의 또 다른 특징인 그랜드 내러티브의 붕괴와 무관하지 않고, 중심의 주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다음은 헤미니즘인데 헤미니즘의 성장과 확산을 포스트모더니즘의 한 양상으로 보는 사람은 그리 흔치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사회구조 안에서 가부장적 권위의 해체는 곧바로 중심의 해체와 주변화에 연결되는 것이며, 헤미니즘으로 인한 이분법 논리의 붕괴 또한 포스트모던의 한 면을 보이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10) 욕망의 발현을 위한 도구로서의 자본주의를 인정한다하더라도 소위 내부관측에 의한 “깨어나 있는” 자본주의와 그렇지 못한 “뭍쓸” 자본주의를 분간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6.

지금까지의 논의는 불충분한 것이긴 하나 수량화에 의해서만 추구된 지식이, 여러 사회 정치적 여건, 즉 산업의 발달, 자본주의의 타락, 정보사회의 급속한 도래 등의 여건 하에서 우리의 인문학과 대학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심각한 위기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이었다.

토머스 쿤(Thomas Kuhn)¹¹⁾에 의하면 위기관 새로운 출현을 위한 필수적 전제조건이 된다. 따라서 우리의 인문학이 진정한 위기를 직면하고 있다면 곧 새로운 이론들의 출현을 예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처음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우리의 인문학이 진정한 우리의 인문학이 아니고, 우리의 대학 또한 진정으로 우리의 대학이 아니라면 인문학이나 대학에게 다가온 위기 또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위기일 수 없다. 일종의 의사위기(Pseudo-Crisis)일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의사위기도 위기는 위기이며 그 위기를 맞는 당사자인 우리에게 불안과 고통을 주기는 진정한 위기의 경우에서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어려운 형편을 승인한 연후에라도 불안과 고통은 제거해 볼만 한 것이며 그런 위기의 극복과정에 뜻하지 않은 우연과 기회에 의하여 예상치 못했던 중대한 의미를 낳지 않는다는 법도 없다. 다음은 그런 위기의 극복을 위한 간략한 프로그램인데, 위기가 의사위기라고 해서 극복을 위한 방책마저 의사/가짜 방책이 되란 법도 없고, 또 위기가 어찌 되었건 불안과 고통의 당사자로서의 우리가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생각해보는 프로그램 자체는 우리자신의 독특한 성질의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위기 극복의 첫 번째 방책으로 언어 특히 우리의 모어인 한국어의 연구를 제시하고 싶다. 언어의 연구가 인문학의 핵심적 구성원인 것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지만 한국어는 포스트모던한 상황에서의 파편화 탈중심화를 대처할 근거들을 그 안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한국어의 통사구조에 있는 대화참가자의 표출, 즉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대화 상황적 역학의 표시는 앞서 리오타르가 사회적 유대의 특성을 대화 상황적 메카니즘으로 파악한 것에 관련지어 볼 때 커다란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경어체계라고 잘못 지칭되는 이 대화상황의 문법적 표출은 그런 요소가 거의 없는 인도유럽어 또는 그 밖의 많은 언어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의 사회생활, 그것에 관한 우리의 인식에서 커다란 기능을 발휘할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된다.

11)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Second Edition(1970), 77.

제인 갤럽(Jane Gallop)이라는 한 해미니스트 이론가의 저서에 『몸으로 생각하기』(*Thinking Through the Body*, 1988)라는 것이 있는데, 이 사람의 생각은 정신/육체 이분 논리와 관련하여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하겠다.¹³⁾ 어찌 보면 지금까지의 철학을 완전히 해체하고 전혀 다른 성질의 철학이 탄생할 일종의 돌파구의 출현을 예감케도 한다.

끝으로 예를 들어 설명할 겨를도 없이 두 가지 프로그램만 더 제시해 본다면, 하나는 심미적 프로젝트(Aesthetic Project)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호성(Vagueness)의 추장(推崇)이다. 심미적 프로젝트는 인간을 정신과 육체의 2분 구조로 파악하는 대신 정신 감정 육체의 3분 구조로 파악하되, 감성으로 하여금 인간으로서의 진정성(Integrity)을 보장하는 에이전트가 되도록 하는 지적 자세를 가리키는 것이다. 또 모호성의 추장은 모호성이야말로 인문학적 지식의 중심에 있는 특성이며 수량화를 통하여 극단에까지 다다른 과학적 지식(*techna, scientific knowledge*)이 산출한 여러 혼란과 모순 상태를 오히려 긍정적으로 설명하는 근거 노릇을 하는 것이다.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열역학에서 나온 엔트로피, 기계론적 사고가 반전되어 낳은 카오스 이론, 지각심리학이 도달한 어포단스(Affordance)¹⁴⁾ 등은 아마도 모호성에서 자기 정당화의 근거를 찾게 될 것 같기도 하다.

7.

지금까지 우리 인문학이 겪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위기의 제공원인자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포스트모더니티의 어떤 특성을 이용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우리 인문학의 성립 가능성을 제시하여 보았다. 수량화에 치중하였던 지식의 획득은 결국 테크네로 하여금 에피스테메를 압도하게 하였고, 거기에 특정한 양식의 자본주의가 결합하여 이루어 놓은 형편은 전통적 인문학이 서있던 자리를 위태롭게 하였다. 이런 포스트모던한 상황¹⁵⁾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참된 지식의 추구에서 찾으려 하는 것이 새로운 세기

13) 물론 이 글에서의 Gallop의 논의가 목적하는 바는 정신/육체의 이분논리의 검토는 아니다.

14) James J. Gibson: *The Perception of the Visual World*. Houghton Mifflin, 1950과 *The Ecological Approach to Visual Perception*. Houghton Mifflin, 1979 참조.

15) David Harvey의 다음과 같은 판단과 전망은 앞에서 말한 심미적 프로젝트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겠다.

... Since crises of overaccumulation typically spark the search for spatial and temporal resolutions, which in

에서의 인문학의 과업이라 생각한다. 소위 포스트모더니티가 진정한 것인지 또 인문학이 겪고 있는 위기라는 것이 진정한 것인지의 문제는 우리 인문학의 본질에 깊숙히 놓여있는 문제이기 는 하나, 그 포스트모더니티를 어떻게 위기상황 극복에 활용하는가가 당면과제일 것이다.

turn create an overwhelming sense of time-space compression, we can also expect crises of overaccumulation to be followed by strong aesthetic movements.

The crisis of overaccumulation that began in the late 1960s and which came to a head in 1973 has generated exactly such a result. The experience of time and space has changed, the confidence in the association between scientific and moral judgements has collapsed, aesthetics has triumphed over ethics as a prime focus of social and intellectual concern, images dominate narratives, ephemerality and fragmentation take precedence over eternal truths and unified politics, and explanations have shifted from the realm of material and political-economic groundings towards a consideration of autonomous cultural and political practices.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Basil Blackwell, Oxford, 1989) 327-8.